

전북체육 활성화 '똥똥 뭉쳤다'

도체육회, 유관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열고 서울 개최 전국체전 필승 다짐
체육정책 개발 등 특강·행사 진행...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 내용도 공유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의 필승을 다짐하고 민선 체육회장 탄생이라는 새로운 체육환경 속에서 전북체육 100년을 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5일 전북도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전북체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이 최근 전주상관리조트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

시·군청, 시·군체육회, 스포츠클럽 등 체육 유관기관 관계자 약 150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에서는 유관기관 유대 강화, 제100회 전국체전 선전, 전북체육 활성화, 체육정책 개발 등을 위한 특강과 체육행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된 것과 관련해 민간

인 체육회장 선출 관련 내용도 공유했다.
도체육회 이인철 상임고문과 최형원 사무처장은 각각 '지방체육이 나아갈 방향', '전북 체육정책 현황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강이 끝난 뒤에는 족구 등 체육활동을 함께하며 관계를 더욱 돈독히 했다.
최형원 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북체육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제100회 전국체육대회를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기회로 삼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도체육회는 최근 '전북체육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전주상관리조트에서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손흥민·황희찬·이강인, UEFA 챔스 명단 포함

(토트넘) (잘츠부르크) (발렌시아)

토트넘, 19일 올림피아코스와 1차전
잘츠부르크, 18일 헝크와 조별리그
발렌시아, 18일 첼시와 첫 경기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27·토트넘), 황희찬(23·잘츠부르크), 이강인(18·발렌시아)이 2019~2020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UEFA는 5일(한국시간) 2019~2020시즌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출전하는 32개팀의 선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준우승에 빛나는 토트넘의 명단에 당연히 손흥민이 포함됐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맹활약했다.
토트넘은 바이에른 뮌헨(독일), 올림피아코스(그리스), 흐르베나 즈베즈다(세르비아)와 B조에 속했다. 바이에른 뮌헨과 토트넘의 선두 경쟁이 예상된다. 토트넘은 19일 올림피아코스와 1차전을 갖는다.
황희찬과 이강인은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에 나선다.
지난 시즌 독일 분데스리가2(2부리그) 합부르크에 있다가 이번 시즌 오스트리아로 복귀

한 황희찬은 시즌 초반 4골 7도움으로 매서운 골 감각을 뽐내고 있다. 잘츠부르크는 디펜딩 챔피언 리버풀(잉글랜드), 나폴리(이탈리아), 헝크(벨기에)와 E조에 속했다. 첫 상대는 헝크로 18일 안방에서 맞붙는다.
이강인도 전날 발렌시아 구단의 발표로 알려졌듯 챔피언스리그 스쿼드에 이름을 올렸다.
이강인은 지난 2일 마요르카와의 리그 3라운드에서 처음으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발렌시아는 첼시(잉글랜드), 아약스(네덜란드), 릴(프랑스)과 H조에 편성됐다. 만만한 상대가 없다. 발렌시아는 18일 첼시를 상대로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런던 원정이다. /뉴시스

전북현대 모라이스 감독, K리그 '8월의 감독'



4월에 이어 두번째

전북 현대를 이끄는 모라이스 감독이 신라스테이가 후원하는 K리그 '8월의 감독'에 선정됐다고 5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밝혔다.
전북은 모라이스 감독의 지휘 아래 8월에 열린 하나원큐 K리그 2019 5경기에서 3승2무를 기록, 같은 기간 K리그팀 중 가장 많은 승점(11)을 쌓았다. 8월 마지막 경기인

FC서울과의 맞대결에서 '깜짝 스리백'을 선보이며 2-0 완승을 거둬 울산 현대를 제치고 1위를 탈환했다.
모라이스 감독이 이 상을 받은 것은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달의 감독'에게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제작한 트로피와 신라스테이 숙박권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시상식은 14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과 상주 상무의 K리그 29라운드 경기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 시즌 이달의 감독상을 후원하는 신라스테이는 호텔신라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이다. 2015, 2016년 '신라스테이 이달의 골 세리머니상'을 통해 K리그 후원을 시작했다. /뉴시스

전북현대 유소년팀, 프랑스 올림픽 리옹 연수

전주 영생고 조진호 등 선수 8명
내일부터 내달 9일까지 5주동안



전북 현대가 세계 수준의 유소년 육성 일환으로 유소년 코치와 선수들을 프랑스 명문 올림픽 리옹에 보낸다.
전북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프랑스 올림픽 리옹으로 5주 동안 연수를 떠난다"고 5일 전했다.
U-15 이정형 코치, U-12 이상권 코치를 비롯해 전주 영생고(U-18) 조진호, 마지강, 엄승민과 금산중(U-15) 최태웅, 진태호, 이수로, 서정혁, 신동환 등 선수 8명이 리옹 유소년 팀에 합류해 훈련을 받는다.
2013년 친선경기를 시작으로 7년째 올림픽 리옹과 교류를 이어온 전북은 유소년 선수들의 기량 증진과 유럽의 선진 유소년 시스템 체득을 위해 연수를 실시한다.
코치와 선수들은 올림픽 리옹 유소년 팀의

운영 방식과 훈련 노하우 등을 익힐 계획이다.
훈련 외에 유럽 축구 최고의 무대인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와 프랑스 리그앙의 라이벌전 올림픽 리옹-파리 생제르맹 경기도 관전할 예정이다.
조진호는 "금산중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리옹 연수를 떠나게 돼 영광이고 기회를 준 구단에 감사하다"며 "3년 전 리옹 연수의 경험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이번에는 리옹 유소년 선수들과 나의 실력을 견주보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배구 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 내년 1월 중국·태국에서

한국 배구의 내년 도쿄올림픽 출전이 결정될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예선 일정 이 결정됐다.
대한배구협회는 아시아예선이 내년 1월 7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남자부는 중국 광저우, 여자부는 태국 나콘라차시마에서 일전을 벌인다. 남녀 모두 8개국 출전한다.
이 대회에는 남녀 각각 1장의 올림픽 티켓이 걸려있다. 세계예선에서 본선행을 확정하지 못한 남녀 대표팀은 이 대회에서 반드시 1위를 차지해야만 뜻을 이룰 수 있다.
러시아전 통한의 역전패로 아시아예선까지 밀린 여자대표팀은 태국에서 티켓 확

보에 도전한다. 라이벌은 역시 태국이다. 태국은 신장은 작지만 빠른 플레이가 강점이다.
지난해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전에서는 한국을 누르고 결승에 안착했다. 홈 이점까지 안고 있어 쉽지 않은 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남자부 참가팀은 이달 13일부터 이란 테헤란에서 치러지는 아시아선수권대회 성적을 통해 가려진다.
스테파노 리버리니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대표팀은 태국과 카자흐스탄, 대만, 이란, 인도네시아, 호주, 홍콩과 1장의 올림픽 본선행 출전권을 놓고 겨룬다. /뉴시스

중요한 미끼의 땅, 김산장수

즐거운 한가위

장수군 농특산물과 함께 풍성하게 보내세요!